

오피니언

光日春秋

고원정



1960년대 어느 지방에서의 일이다. 다섯명으로 구성된 한 위원회가 있었다. 교육에 관해서 상당히 비중있는 역할을 맡은 위원회였다.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히 육상빌 만한 자리가 아닐 수 없었다. 위원 다섯명 중 두 사람이 불만에 올랐다. 갑과 을이라고 하자. 남은 세명 가운데 둘은 갑의 제자였다. 그 두 사람은 스승인 갑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둘이 선생님을 찍고 선생님이 선생님을 찍으면 3대2로 우리가 이긴다” 그러나 투표를 마친 결과는 거꾸로였다. 3대2로 오히려 을이 이겨서 위원장이 되어버렸다. 어이없어하는 제자들에게 갑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어떻게 나를 찍나~” 정말 옛날 이야기다. 그것이 그 시대의 정서였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나선 어린이도 차마 제 이름을 써내지 못하던 무렵이었다.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모든 공직도 마찬가지였다. 속마음이 어디에 있든 겉으로는 사당하고 자신의 능력부족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마치 못한 듯 받아

들이는 게 관례였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 ‘나름 적임자도 많지만 사람들이 원한다면 한 번 해보겠다’ 나한테 주어진 책임이라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그 시대의 출마의 변이요 취임사의 수사학이었다.

지금 와서 그 시대의 그런 정서를 위선이요 이중성이라고 비판하기는 쉽다. 그로 인해 빚어진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그 위선과 이중성은 그 시대의 개인과 사회가 모두 최소한의 도덕성, 최소한의 겸양과 절제와 분수를 지키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지난날에는 자신의 능력을 시장에 내다 팔기보다는 남들의 시선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세계에만 잠잠하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다. 정치나 시류와는 무관하게 한 길을 걸어가는 학자, 예술가, 사회운동가들이 그 어떤 권력자보

다도 존경을 받곤 했다. 전국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그렇게 빛나는 이름들을 몇몇씩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이제 시대는 달라졌다. 반장선거에서 라이벌의 이름을 써내는 아이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모든 공직자들은 보는 이가 낯뜨거운 청문회석상에서도 자신이 적임자임을 끝까지 주장한다. 각종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자신만이 해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무대도 나서야만 하는 시대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드러내야 하는 세대다. 어느 편이 더 바람직한가를

옛날 이야기

따진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처신과 변신이다. 자기 전공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지명도를 얻은 사람들이 무슨 정해진 코스트럼 정지에 입문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한 흐름이 되고 말았다. 물론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학자 출신이라고, 전직 CEO라고, 시민운동가라고 해서 국회의원이야 장관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놀랄 일도 아니다.

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정치판에서 하고 싶어 한다

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왜 그들은 전문가로서의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제대로 성숙하고 민주화된 사회는 그 동력이 정치권력에 편중되지 않고 각 분야에 고르게 균분되어 있어야만 한다. 원로 학자, 예술가, 인문학, 시민운동가의 한 마디가 대통령의 한 마디와 맞먹는 비중을 가지는 사회라야만 제대로 살 맛이 나지 않겠는가? 말로는 탈정치적의 시대로 프로들의 시대라는데 70년대나 80년대가 아닌 지금도 끊임없이 정치권으로 유입되어가는 전문가들의 행렬은 그래서 안타깝다.

또 옛날 이야기를 하자. 문인단체의 회장은 커녕 대학의 학과장 자리까지도 감당할 수 없으며 사양하고 문화훈장 또한 본인 생전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소설가 황순원 선생은 생전의 어느날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치권으로 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는 쉽지만 막상 본인이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 거절하기가 쉽겠습니까?’라는 제자의 우문에 대한 현답이었다.

“그런 제의 자체가 오지 않도록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처신이다” 말 그대로 백가쟁명의 오늘을 바라보며 새삼 그런 선생들이 그리다. 그런 말씀들이 듣고 싶다. 아니다, 그런 분들을 기릴 줄 알던 옛날이 그리다. <소설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이통사 막가는 고객 유치전 방치만 할 건가

이동통신사 3사 간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온갖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국내 이통사 업체는 겉으로는 클린마케팅, 공정경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보조금 지급, 과장 광고, 고객행위, 소음 등 불법 마케팅을 일삼고 있다.

이통사 업체들은 광주 총장로 등 매장 앞 도로에 입간판은 물론 홍보 가판대까지 설치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과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지나가는 시민을 상대로 고객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다. 공짜 휴대폰이라 해놓고 뒤늦게 단말기 값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이통사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입간판이나 가판대는 물론 홍보전단이 거리를 뒤덮어도 단속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돈벌이에 급급한 이통사 업체의 상흔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꼴이다.

여수엑스포 유치에 본격 나선 정몽구 회장

현대·기아차그룹이 유럽에서 2012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활동을 본격화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대표단과 함께 24일 기아차 슬로바키아공장 준공식과 25일 현대차 체코공장 기공식에서 치열한 홍보전을 벌였다. 만찬장에서 여수엑스포 홍보영상물이 방영되고 행사장 곳곳에 플래카드가 걸렸더니 그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정몽구 회장은 양국 정부 고위관계자 등에게 여수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고 지지를 호소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 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정부대표인 김병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국회대표인 이인기 국회특별위원회위원장은, 오현섭 여수시장 등 정부 대표단도 합세했다.

정 회장에게 여수 세계박람회는 남다른 것이다. 정 회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10 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장을 맡아 지구를 4바퀴나 돌며 유치전을 치열하게 펼쳤으나 고배를 마신 쓰라린 경험이 있다. 그런 정 회장이 5년 전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유치활동을 본격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물론 홍보전단이 거리를 뒤덮어도 단속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돈벌이에 급급한 이통사 업체의 상흔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꼴이다.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통사의 불법행위는 시민 불편만 주는 게 아니다. 엄청난 마케팅 비용은 결국 ‘통신료와 부가서비스 가격 인상’이라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과점체제가 심화하면 소비자들이 치러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동통신업체 스스로 자정에 나서기는 어려울 듯하다. 당국은 우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고객행위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불법행위가 낱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으로 버젓이 자행되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어떻게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시민, 소비자단체, 이동통신이 용자 스스로도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2012여수엑스포유치위원회에서 정 회장의 공식 직함은 고문에 불과하다. 하지만 다음달 브라질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개최지 결정 투표 전까지 매일 해외를 순방하며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그룹 내에 별도의 태스크 포스를 설치했고 세계 190여개국에 있는 해외 법인과 대리점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유치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 회장과 현대·기아차그룹의 유치활동 본격화는 모로코 탕헤르 및 폴란드 브로츠와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여수에 엄청난 힘이 될 것이다. 특히 유럽국가 공략은 유럽연합의 전폭적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는 폴란드의 세를 꺾을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유치전이 정부와 재계, 학계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기고

선학태



광주는 예로부터 문화와 예술의 고장이다. 참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전력이자 발전패러다임이다. 디지털 융합시대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핵심 문화콘텐츠를 산업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경제 성장동력이다. 관광시장 측면에서 매력적인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아시아 문화관광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문화중심도시 건설이야말로 이미 세계적인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는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광주 문화의 글로벌화를 통해 광주 브랜

지역문화는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다. 하지만 지역경제를 표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광주는 우리 현대사의 교차로에서 항상 방항타 역할을 해왔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의 메카로 상징되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의 철학과 정신이 문화전당 건립에 녹아내려야 한다. 광주의 트레이드마크인 민주·인권·평화의 담판이 형성화되고 광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기능이 보완되는 것이 문화중심 도시 건설의 올바른 방향이다. 광주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문화수도 건설, 지역적 가치판단 고려해야

드 파워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성장잠재력이다. 그런데 문화중심 도시 추진위원장의 사표를 용용했다는 보도가 있다. 사업 추진 방식을 둘러싸고 관광부와 위원회·지역민 간의 갈등이 분출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조짐을 보인다. 이 갈등 등은 관광부 중심의 사업 추진방식에 비롯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일방적이고 하향식 추진방식은 문제가 많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지역의 경제, 환경, 노동,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의사결정들이 중앙정부-지방자치-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정·협력네트워크가 작동하는 지역거버넌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적 접근이 갈등과 반발을 따른 지역사회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문화도시 사업 추진도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문화전당이라는 하드웨어가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느냐가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데 중요한 몫을 하기도 한다.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문공부와 지역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네트워크에 기초하는 문화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문화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해법이다. 물론 전문가의 설계는 존중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의성’이 경시할 수 없는 정책적 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공부 중심의 하향식 사업 추진은 ‘참여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매우 ‘부적절함’ 사업 추진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요컨대 광주 문화도시 건설은 전문성과 예술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역·광주적 가치판단을 고려해야 한다. 기술관료 및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스타일은 갈등과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전남대 사범대 윤리교육과 교수>

올해는 ‘소값 파동’주기, 위기 극복위해 지혜 모을 때

한우는 11년마다 ‘소값 파동’을 겪는다는 말이 있다. 그동안 소값 파동은 정확하게 11년마다 나타났고 공교롭게도 올해가 그 시기다. 특히 한·미 FTA까지 타결이 되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다 농민들이 이를 감안, 쇠고기 출하를 늘릴 경우 농촌은 자칫 썩빠짐이 소값 파동을 겪게 될 우려도 높다. 무안에서 한우를 키우는 부모님도 소를 내다 팔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불쌍하고 있어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한다.

얼마전 발표를 보니 한우 사육마리수가 현재 다시 2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 한우가 외국 쇠고기의 도전을 이겨내고 잘 지켜왔기 때문에 200만마리나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우 200만 마리라고 해서 기쁜 일만은 아니다. 한우 농가들이 지레 겁먹고 소를 마구 내다 팔 경우 한우 파동이 일어날지 모른다. 정부와 전라남도, 지역 한우 농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기철·광주시 서구 농성동>

기고

전대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의 공익적 가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약640만ha)이 1년간 제공하는 공익기능가치(간접적인 혜택)는 국내 총생산(GDP)의 8.2%인 65조9천066억원에 이른다. 국민 한 사람 당 연간 약136만원 정도의 공익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숲’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빨간색을 제공해 밥을 짓게 하고 따뜻한 보금자리

는 천관산 동백숲에 대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와 천관산동백숲보전회의 ‘국민의 숲’ 협약은 지난 2005년 3월 25일에 그 환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천관산동백숲은 복합을 바라보고 있는 계곡에 길게 자리잡고 있어 동백나무 서식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다른 동백숲과는 달리 3월이 되어서야 꽃을 볼 수 있는 이 숲은 ‘꽃이 피어서 한번, 질때

천관산 동백 숲을 명품 숲으로

를 제공하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류가 숨쉬고 생존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자 함께 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 한 지 오래다.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은 단순히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경관의 대상이 아니다. 숲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반국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가 ‘국민의 숲’ 협약의 동기가 됐다. 우리가 받기만 했던 숲에 봉사하고 우리의 후손에게 보다 더 나은 아름다운 숲을 전해주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숲’은 국유림을 숲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국유림 관리 시스템이다. 국내 최대의 동백숲 군락을 이루고 있

한번, 두 번 꽃이 핀다’고 말할 정도로 동백꽃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6만여평(20ha)에 이르는 동백숲은 그 보전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토론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세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숲은 그 아름다움이 훼손되기 십상이다. 반면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마련이어서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중이다. 이제 한국기네스에 올라 세계적인 명품 숲을 만들겠다는 서부지방산림청과 천관산동백숲보전위원회, 장흥군의 힘이 가시화되고 있다.

천관산 동백숲이 지금보다 더 나은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져 그 안에서 주변에 다른 숲들과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게 되기를 기대한다.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장>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위해 도로 표지판 숙지해야

장거리 여행, 특히 다른 지방으로의 여행을 계획하는 운전자에게는 표지판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이 때문에 운전자라면 우선 도로표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 두는 게 좋다. 도로표지의 종류와 의미, 노선번호 이용 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그만큼 고속도로 운전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도로표지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향표지다. 고속도로에서 출구지점 2km 전방, 1km 전방, 150m 전방, 출구 지점 등에 설치되는 방향표지는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와 지명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운전자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명은 운전자의 판단 능력과 인지도를 고려해 원거리와 근거리 중요지명만 최소한으로 일관되게 구성하여 주행안정성과 방향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표기하고 있다.

즐거워야 할 가족과 연인과의 여행이 급한 마음으로 나서다가는 자칫 고생길이 될 수 있기에 철저한 계획과 지도 준비, 표지판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등과 같은 사전 준비를 한다면 시간, 비용도 절약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이다. <▲이정희·한국도로공사 담양영업소>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等鼓

북권의 역사는 유구하다. 로마시대 황제가 연회에 참석한 귀족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추첨으로 노예 등을 나눠줬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북권은 런던올림픽 참가 경비 조달을 위해 지난 1947년에 발행된 올림픽 후원권이다.

북권의 ‘왕중왕’은 단연 로또다. 지난 2002년 도입된 이후 해가 바뀌고 가격을 내려 1등 당첨금을 낮추고 로또 북권의 인기는 여전하다. 과거 무주택 서민들을 돕는다는 순수한 의도가 남아 있었던 주택북권과는 차원이 다르다.

814만분의 1이라는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이유는 일확천금의 꿈이 있기 때문이다. 수억원 대의 돈이 붙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당첨도 로또에 비유되고 한 마리에 수천 만원을 호가하는 고래도 ‘바다의 로또’로 표현된다.

북권은 부유층보다는 서민층이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가 의하면 고졸 학력자가

대졸 학력자보다 4배, 흑인들이 백인보다 5배 더 많이 북권을 구입한다고 한다. 때문에 북권은 빈자(貧者)의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없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돈을 거둬 한 사람에게 몰아준다는 의미다.

북권도 도박이다. 오히려 동원력과 대중성이 있다는 점에서 도박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너나없이 한탕을 노린 대학살에 걸속이도 취해 있다. 극심한 불경기 속에서도 카지노와 경마 등 각종 사행산업은 나날이 번창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 앞 문방구에서도 어린이들이 상대로 한 사행성 게임이 성행하고 있는 정도다. 100원짜리 동전으로 최고 80배까지 뱅킹가가 가능하다며 동심을 부추기고 있다. 일확천금 심리는 물질 만능을 부추기며 국민들을 무민화시킨다. 어린 학생들을 불로소득의 유혹으로 부러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다. </김재철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문방구 로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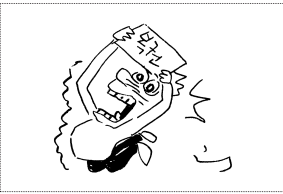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